

하늘사랑

2018. June

6

www.kma.go.kr Vol. 444

정책 클로즈업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는
'정보보호'에 달려있다

포커스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기상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날씨 + 그래픽

비와 '어린' 당신의 이야기



기상청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람중심, 이용자 위주의 혁신적인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조사기간 **2018.7_2019.12** 16개월간
조사대상 화재안전이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등 55만4천개동
조사방법 소방, 건축, 전기 등 전문 조사반의 현장조사

- | | |
|---|--|
| 01
건물 안전 실태 조사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화재위험요인 종합조사 | 02
화재 위험성 평가
화재안전 점검결과 분석
위험성 평가 및 DB구축 |
| 03
대국민 정보공개
국민의 안전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 04
사람중심 화재안전기준
건축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화재안전관리시스템 개선 |

하늘사랑

2018 June Vol. 444

2018년 6월호(통권 444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8년 6월 11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남재철 편집장 정해정 편집기획 윤기환 최의수 조희애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정책 클로즈업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는
 '정보보호'에 달려있다 · 02

포커스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기상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 04
 국립기상과학원, 아름다운 나눔 장터를 열다 · 06

KMA 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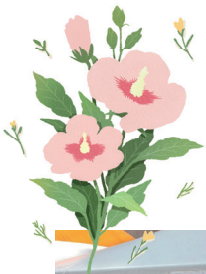
열린마당
 제7회 생기발랄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 · 08
 부부는 푸꾸옥(Phu Quoc)으로 간다 · 12
 수천 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크로아티아,
 내 가슴 속 꽃이 되다! · 14
 정든 기상청을 떠나며 · 16

KMA 날씨 +

날씨 + Story 밥상 위를 덮친 기후변화,
 제철 수산물이 사라진다?! · 18
 날씨 + Book 한 말씀만 하소서 · 20
 날씨 + Travel 감사합니다! Merci! Danke! Grazie! · 22
 날씨 + 그래픽 비와 '어린' 당신의 이야기 · 24
 날씨 + 연애 소나기, 비의 계절을 지나는 · 26

KMA Report

포토 브리핑 · 28
 독자 마당 · 30
 포토 에세이 · 32



June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는 '정보보호'에 달려있다



관측기반국 정보보호팀

최근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CT)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우리의 생활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기술적으로 진화한 사이버 공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정보보호의 필요성

과거 해킹은 소수의 프로그램 개발자가 자신의 개발 능력을 테스트 하고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해킹은 공격 대상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사용 권한 및 주요 정보를 탈취하여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일명 '랜섬웨어'의 형태로 변모했다. 지난해 5월에 등장한 랜섬웨어 '위너크라이(WannaCry)'는 전 세계 150개국에서 30만 대의 기기를 감염시키며 전례 없는 큰 피해를 주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연일 보도되며 사람들에게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인사 및 정책정보, 대형 포털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등 해마다 대형 사이버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교통 및 에너지, 금융 등 국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분야는 사이버 공격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DDos 공격에 대한 경각심의 의미로,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기상청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안전의 날',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보호 기반 확보를 위한 발돋움

기상청의 주요 업무인 기상관측, 기상자료 분석, 기상정보 전달, 기상민원서비스 등의 모든 기상관련 업무는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상청의 주요 정책인 기상정보서비스 활성화와 기상산업육성 방향 등을 검토할 때에도 안전한 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해 정보보호 방안까지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특히 기상청은 국민과 지자체, 방재기관 담당자의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기상 특·정보 통보, 생활기상정보, 해양기상정보, 기상민원서비스, 131기상콜센터 등의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리고 더욱 안정적인 기상업무 수행과 정보보호업무 책임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부서 '정보보호팀'을 지난 4월에 신설하였다.


꼭 지켜야 할 정보보호 10가지

<p>01 정품 프로그램 사용하기</p> 	<p>02 공유폴더 사용 최소화하고 사용시 비밀번호설정</p> 	<p>03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p> 	
<p>04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기</p> 	<p>05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p> 	<p>06 비밀번호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p> 	<p>07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않기</p> 
<p>08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는 자동 업데이트 설정</p> 	<p>09 공식마켓에서 앱다운로드 하기</p> 	<p>10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파일은 열어보지 않기</p> 	

안전한 기상서비스를 위한 노력

정보통신기술의 융합·발전이 가속화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보호는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51개 부처 중 5곳만이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10여 곳은 정보보호 업무를 팀 단위로 담당하고 있다. 그 외 30여 개 부처는 사이버 보안 인력 충원과 전담조직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보안담당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 정보보호 전문가를 단계적으로 채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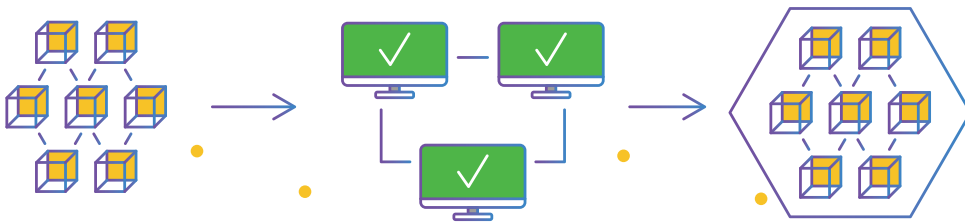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움직임에 앞서 우리 기상청은 정보보호팀 전담부서를 꾸려 정보보호 업무 전문성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정보보호팀은 기상청의 각 부서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감사를 강화하고 보안 지도 및 점검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상청 소관인 사이버안전센터의 사이버 보안 강화 구축을 통해 기상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업무 전문성 또한 한층 더 세분화하여 강도 높은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상청은 더욱 고도화된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께 더욱 안전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쳐본다.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기상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상의 정보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산업 전반을 매우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서도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사람은 블록체인의 실체와 사용 분야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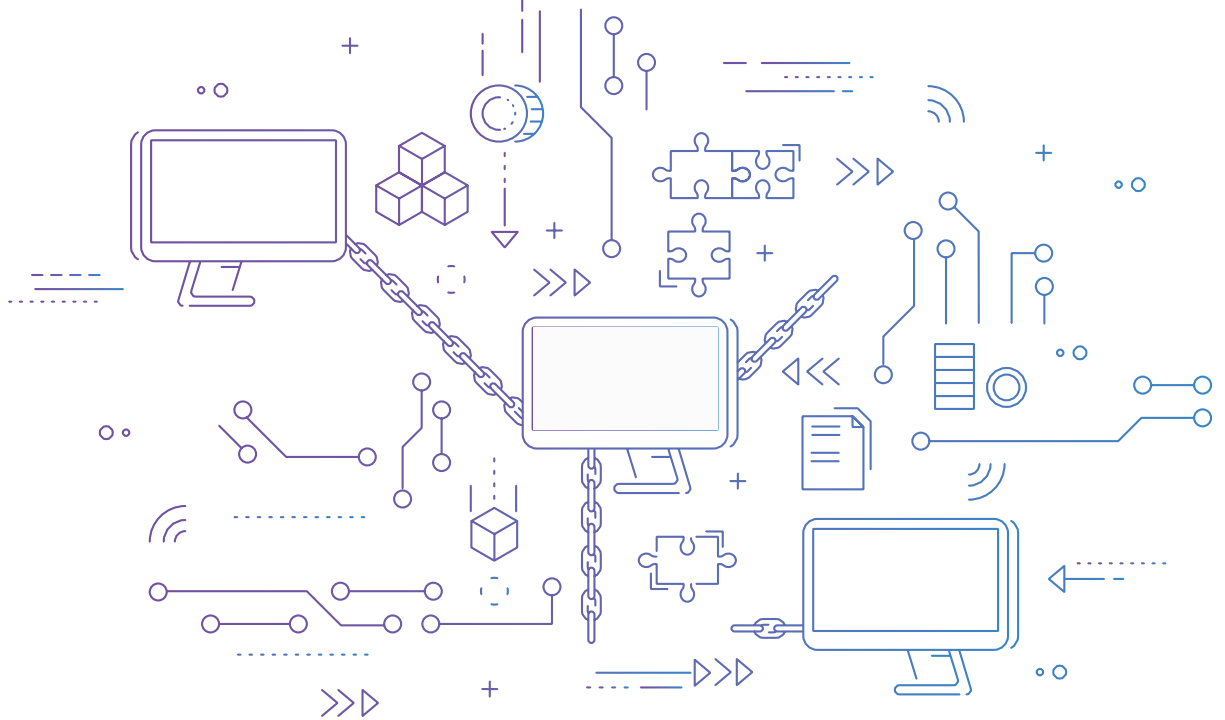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 블록체인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거래 기록을 중앙 집중형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여러 대의 컴퓨터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고 해킹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도 블록체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낮은 이유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기상청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기상업무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기상업무에 특화되어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고,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과 기상산업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블록체인, 기상업무와 만나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기상업무와 결합하기에 앞서, 기상청이 생산하는 다양한 빅데이터와 민원업무에 대해 상세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자료에 대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상 데이터는 빅데이터에 저장되기 전에 반드시 검증이 완료된 신뢰도 높은 정보여야만 한다. 현재 기상민원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상증명, 기상감정, 기상측기 검정증명서 등의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을 진단해 볼 필요도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28개 관측기관이 보유한 수천 가지의 기상측기 이력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가능해 보인다. 기상측기 전(全) 주기 관리 차원에서 기상측기 생산, 판매 및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과정의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하여 보관한다면, 기상측기 유통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기상업무에 활용 가능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처한다면 기상청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받아들이는 선도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상관측 표준화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월 17일 공포되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상측기 형식승인업무 도입과 형식승인업무 대행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것이다. 2021년 4월 18일부터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가 검정대상인 10종의 기상측기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상측기의 재질, 구조, 내구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면 기상측기에 대한 정보의 위변조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기상측기에 대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프로그램 알고리즘과 보안상의 문제와 약간의 취약점 등이 완벽하게 해결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기상업무에 적용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기상서비스와 성공적으로 접목된다면 사용자는 양질의 기상서비스를 제공받고, 기상산업체는 자사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 국가기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기상청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상서비스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에 순조롭게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기상청은 다양한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블록체인 기반 기상서비스를 발굴하고, 지능형 정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국립기상과학원, 아름다운 나눔 장터를 열다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과학원직협)'는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했다. 과학원 직원들은 총 144점의 상품을 기증 및 판매하여 652,200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수익금은 사랑의 열매에 전액 전달돼 서귀포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함께하는 공간을 그리다

삶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치가 있다. 그동안 과학원직협은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왔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아나바다 장터'였다. 우리의 아나바다 장터 기획안은 성별, 직급, 연령, 성향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 덕분에 처음보다 완성도가 높아졌다. 또한, 회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많이 배울 수 있기도 했다.

따뜻한 마음과 소통의 매력이 함께하는 장터

국립기상과학원 전 직원에게 장터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렸다. 기부 물품이 적게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했으나, 모두 기우였다. 과학원직협의 사무실은 책, 옷과 같은 일상적인 물건부터 로봇청소기, 해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야말로 감동이었다. 탐나는 물건이 있다는 귀뜸, 참여 방법과 시간을 물어보는 사람, 수익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의 등은 장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드디어 아나바다 장터가 열리는 세계 기상의 날이 다가왔다. 장터 개시는 오후 3시부터인데, 우리 부스는 점심때부터 사람이 바글거렸다. 토스트 기계와 아동용 소파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식용유나 쓰레기봉투 같은 생필품 경쟁은 치열하기까지 했다. 오후 3시, 장터 개시를 알리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인기가 많은 물건은 개장 10분 만에 팔려나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전시된 장터 물품들





복직복직한 장터 모습



한 차례의 인파가 빠져나간 후, 우리는 남아 있는 상품과 경매 물품 참여를 위해 호객행위를 했다. 하나라도 더 팔아주려고 둘러보시는 분, 이거 사면 부인에게 혼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물건을 사는 분들에게선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이윽고 경매가 시작되었다. 경매 물품은 스테퍼, 라꾸라꾸 등 총 9점이었다. 이중 가장 인기가 좋은 품목은 운동기구인 스테퍼와 생활용품인 코펠 세트였다. 누가 얼마를 적었는지 예상하는 눈치 싸움이 막판까지 굉장했다.

경품 추첨 또한 즐거운 시간이었다. 구매 물품 한 건당 한 번의 경품 응모 기회를 주었는데, 4등 당첨자가 2등에 당첨되고 3등 당첨자가 또다시 1등에 중복으로 당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마음 넓은 1등 당첨자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등 경품을 즉석에서 재추첨해 다른 이에게 전달했다. 2등 당첨자도 4등 경품을 다른 분들에게 전달했다. 덕분에 장터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맘껏 웃으며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공간, 아나바다 장터

예로부터 장터는 물건을 매매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소식을 교류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우리 장터는 사무실을 벗어난 직원들을 마주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었으며, 장터라는 매개체를 통해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었다. 내년에는 장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벌써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 과학원직협은 이번 행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즐거운 과학원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수익금 전달





제7회 생기발랄 캘리그래피 공모전 수상작

부산지방기상청에서는 3월 23일 '세계 기상の日'을 맞이해 '기후변화를 알릴 수 있는 자유 문구'를 주제로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개최했다. 일반부와 청소년부의 각 수상자 소감을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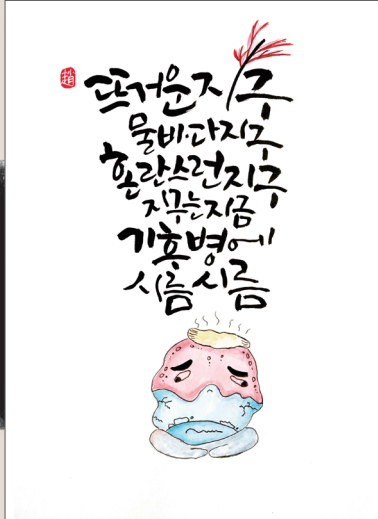


캘리그래피 공모전 심사



캘리그래피 공모전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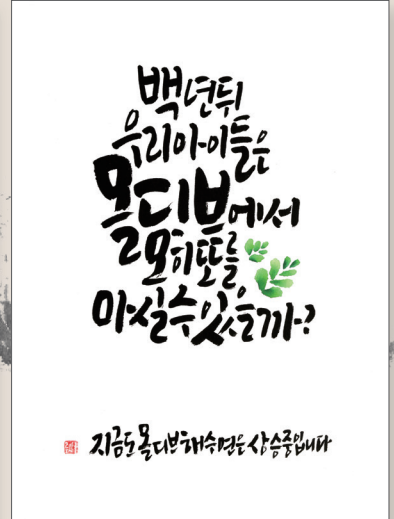
일반부
수상작



우수 조은숙



장려 박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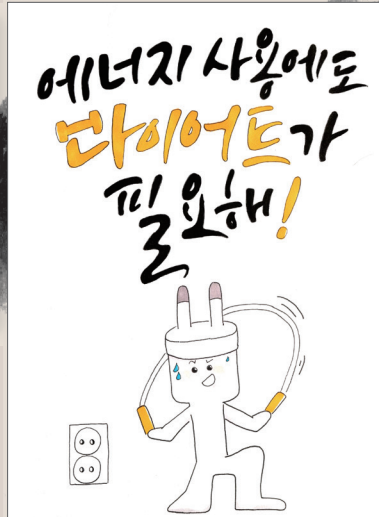


장려 조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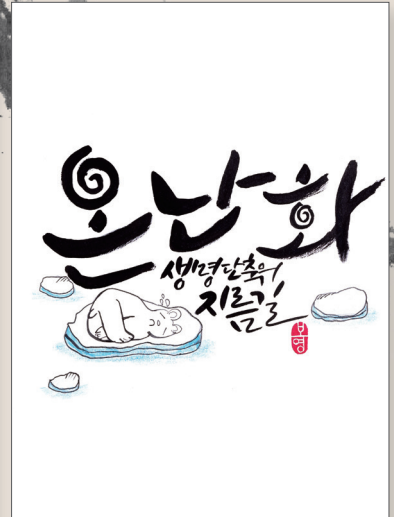
청소년부
수상작



우수 강현지



장려 유채원



장려 박보영

일반부 최우수상 소감



최우수 이강미 | 일반부



이강미
클아름캘리그래피

기상청에서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안녕하세요, 세계 기상의 날 기념 제7회 생기발랄 캘리그래피 공모전에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강미라고 합니다. 저는 캘리그래피 강사로 활동하며 학생, 성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캘리그래피 공모전에 참여해봤지만, 이번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주관한 공모전은 '생기발랄'이라는 명칭만으로도 저에게 호기심을 주는 공모전이었습니다. '생기발랄? 기상청과 생기발랄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궁금해 안내문을 읽어보니 '생활속 기상&기후변화 발견 랠(알)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목부터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공모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모전 주제가 '기후변화를 알릴 수 있는 자유 문구'라는 조금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문구를 구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요.

차 키를 놓는 순간, 공기를 살리는 키를 잡을 수 있다

전 세계가 환경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앓고 있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기후변화를 알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주제인 '기후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공기 오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언제부턴가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마스크 없이 외출할 수 없는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대기오염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싶었지요. 그중 하나가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차키를 놓는 순간 공기를 살리는 키를 잡을 수 있다'라는 슬로건 형식의 글을 정리한 후, 이에 어울리는 그림을 구상했습니다. 깨끗한 하늘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린 맑은 느낌의 수채화 일러스트로요. 아마도 캘리그래피 내용과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뜻깊은 공모전을 만들어 주신 부산지방기상청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최우수상 소감



최우수 | 이주연 | 청소년부



이주연
창원 구암초등학교 6학년

우리가 실천하는 기후변화 예방접종

최우수상! 뜻밖의 결과를 들었을 때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번 캘리그래피 공모전은 저에게 첫 도전이었기에 수상을 기대하기보다는 경험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등을 하게 되다니요! 너무 뜻밖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미술에 관심이 아주 많았지만, 캘리그래피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5학년 때 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캘리그래피를 신청하게 되었고, 수업을 듣는 1년 동안 참 즐거웠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글로 다양한 작품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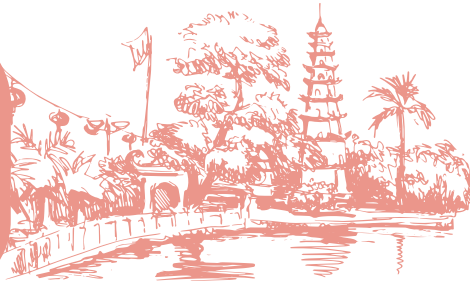
기상청 생기발랄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저는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이 캘리그래피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무엇이든 꾸준히 노력하고 즐겁게 하면 좋은 결과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끈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캘리그래피 공모전에 도전하여 나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습니다.

청소년부 1등 수상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신 주변 분들과 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 캘리그래피를 직접 지도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반 친구들에게 특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시상식장에서 많은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신 부산지방기상청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생기발랄 캘리그래피 파이팅! 나도 파이팅!”

부부는 푸꾸옥(Phu Quoc)으로 간다



조금 늦은 나이에 나의 반쪽을 만나게 되어 후다닥 진행된 결혼식. 우리의 결혼식은 앞날에 대해 함께 얘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느낄 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그래서 신혼여행만큼은 꼭 설 수 있도록 관광객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섬으로 떠나기로 했다.



베트남 최남단의 섬, 푸꾸옥

우리가 조용한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한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베트남은 다낭, 호찌민, 하노이 등 매년 인기가 치솟고 있는 여행지로, 여기가 베트남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나라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생물보존지역이자 CNN이 '세계 10대 해변'으로 선정한 베트남 최남단의 푸꾸옥(phu quoc) 아일랜드를 여행사로부터 추천받은 우리는 생소한 섬 이름과 호찌민을 경유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떠났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다. 인천공항에서 출발 예정인 비행기가 1시간 연착되고, 호찌민의 오후 비행기가 저녁 비행기로 변경되고만 것이다. 게다가 호찌민에서 만난 가이드는 한국인이 아니라 현지인이라서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상황이 엉망인데 말까지 안 통하니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났다. 하지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푸꾸옥에 도착하고 보니,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과 더위 때문에 솟구쳤던 짜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리조트를 위한, 리조트에 의한 푸꾸옥

푸꾸옥은 리조트를 위한, 리조트에 의한 곳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멋진 숙박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다양한 매력을 지닌 리조트와 숙박시설이 즐비하다고 한 여행사 직원의 말도 생각났다. 우리나라 서울의 면적보다 약간 더 작은 푸꾸옥은 최근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그동안 지친 심신을 치유해줄 마사지와 관광객이 적어 섬 전체를 전세 낸 듯 한 기분을 만끽할 여유로운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숙자
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



푸꾸옥 섬의 자랑, 빈펄랜드!

푸꾸옥의 즐길 거리라 하면 단연 빈펄랜드다. 이곳은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큰 규모와 볼거리를 자랑한다. 빈펄랜드 안에 있는 워터파크와 사파리 등은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펭귄과 사자는 우리나라 동물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지만, 큰 규모에서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고, '물고기는 회식 메뉴로 나오는 광어와 우럭이 최고지!'라는 생각을 바꾸게 해준 형형색색의 열대어는 '자연적으로 생긴 색깔이 이렇게 다양했나?' 싶을 정도로 놀라웠다.

푸꾸옥의 먹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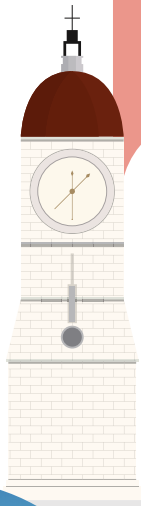
먹거리를 빼놓고 어찌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으랴! 크랩, 새우 등의 해산물이 풍부한 야시장 먹거리 투어는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평소 먹기 어려운 해산물을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야시장에서 유명한 첼판 아이스크림도 기억에 남는다. 연유가 첼판 위에서 아이스크림이 되어가는 과정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다.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즐길 수 있는 장소도 많은 푸꾸옥이지만 당부하고 싶은 사실 하나가 있다. 푸꾸옥은 아직 개발 중인 휴양지이기 때문에 음식에 들어간 베트남 특유의 향신료가 너무 강하다는 것! 향신료에 약한 우리 둘은 현지 음식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다. 헬쓱해진 얼굴로 베트남의 유명 커피와 케이크를 식사 대용으로 삼던 우리는, 푸꾸옥에 딱 하나뿐인 한국인 식당을 여행 마지막 날 겨우 찾아내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쳤다.

베트남에서 힐링 여행지를 찾는 이가 있다면 푸꾸옥을 추천한다. 다만, 본인이 향신료에 매우 취약한 편이라면 컵라면과 즉석 밥은 반드시 챙겨가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



수천 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크로아티아, 내 가슴 속 꽃이 되다!



크로아티아는 중남부 유럽 아드리아해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한반도 1/4 면적의 작은 나라이다. 이렇게 작은 나라여서일까?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크로아티아는 그저 낯선 나라일 뿐이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대륙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낯설었던 이 작은 나라가, 어느 순간 내 가슴 속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다.

크로아티아에 첫발을 내딛다

지난 4월, 동유럽과 발칸 5개국을 경유하는 여행을 다녀왔다. 프라하, 비엔나, 부다페스트에 비교해 솔직히 발칸 쪽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크로아티아는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유럽여행을 계획하던 중 요즘 뜨고 있다는 동발(동유럽+발칸) 여행 때문에 선택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기대는 설렘으로 바뀌었다.

오스트리아를 지나 크로아티아로 향하는 길이었다. 터널을 하나 통과해야 했는데, 길지 않은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갑자기 기후가 확 바뀐 것이 확연히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달라졌다. 높은 설산과 하늘을 향해 쪽쪽 뻗어 있던 나무들의 키가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다. 지중해성 기후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다. 신기했다. 나는 그렇게 크로아티아에 첫발을 내디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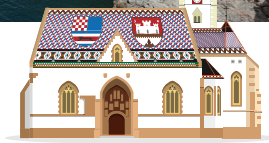
성벽 투어와 질푸른 바다

크로아티아의 스플리트는 유럽인이 사랑하는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 가면 야자수가 늘어선 리바 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해변에는 노천카페가 줄지어 서 있고, 그곳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선 자유와 젊음이 느껴진다. 역시 최대 휴양지다운 면모랄까.

우리는 수천 년 전 유적인 디오클레시안 궁전을 구경하러 가기로 했다. 바닷가에 늘어진 가게 사이로 난 문을 열고 지하도로를 건너자, 눈 깜빡할 사이에 현재에서 로마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다. 불과 몇 걸음 사이로 현재와 로마 시대를 넘나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현재와 과거를 같은 장소에서 한 번에 느낄 수 있다는 게 색다르게 느껴졌다.



강경아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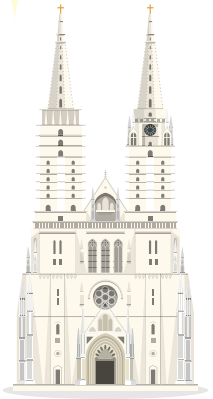
다음 일정으로,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옥빛 아드리아해를 누비며 두브로브니크로 향했다. 그곳의 푸른 바다와 절벽에 늘어선 오렌지 색 지붕은 절묘하게 잘 어울렸다. 우리는 성벽 투어를 하기로 했다. 수천 년 전 축조된 성벽을 걸으며 내려다본 고(古)도시의 풍경이 참 아름다웠다. 투어 중에서도 특히 백미는 해안가를 걸을 때였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짙푸른 바다는 내 머릿속을 헤엄치던 잡념을 모두 쓸아내어도 전부 품어 줄 것만 같았다. 수영도 못하는 나지만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충동마저 느껴졌다.

나에게 꽃이 된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어디를 가도 현재와 미래, 자연과 인공이 한데 어우러진 것 같다. 자다르도 마찬가지다. 바닷가에는 설치예술가 Nikola Basic이 만든 바다 오르간과 태양열판 설치 작품이 있고, 도로만을 건너면 수천 년 전 로마 시대 건축물인 포룸과 성 도나타 성당이 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는 생각보다 높은 건물이 많지만,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지나 조금만 언덕을 올라가면 2개의 첨탑이 멋진 자그레브 성당이 나온다. 어떻게 그리 섬세한 조각을 했는지 경이롭기 그지없다. 성 마르코 성당은 어떠한가. 성 마르코 성당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 화려한 지붕이 자아내는 매혹적인 자태에 연신 감탄이 쏟아져 나왔다. 하얀 물결이 춤을 추던 플리트비체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도 잊을 수가 없다.

크로아티아의 풍경을 다시 떠올리다 보니,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 생각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그 구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던 크로아티아는 이제 나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었다. 깊고 푸른 바다와 오렌지 빛 지붕들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가슴 속에 오래도록 피어 있을 것 같다. 🌸





정든 기상청을 떠나며



스무 살 나이에 입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 그동안 정든 기상청을 올해 7월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상청에서 근무한 기간이 매우 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그동안의 세월이 찰나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추억은 파노라마처럼

추억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1978년에 기상기술원양성소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이듬해 3월에 광주 예보과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부모님께서 군 입대 고지서를 직접 들고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번 돈으로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자장면을 사드렸습니다. 군을 제대한 후에는 대전에 복직하여 주로 지상기상관측과 통계 및 일기도 분석 등의 업무를 배웠습니다. 특히, 1987년 7월에 만난 태풍 '셀마'와 충청남도 서천과 부여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겪은 막대한 홍수 피해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예보관의 고충

1997년 후에는 기상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보업무를 배우며 대학원(대기과학과)을 수료했습니다. 가칭 '예보사관학교'였던 예보관 교육을 이수하고, 사무관 진급 후에도 2015년까지 20여 년간, 단·중기예보와 특·정보 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본청과 지방청의 예보관, 통보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예보가 빛나가 불특정 일반인의 항의 전화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우리 동네 이웃처럼 성실하게 답변해 기상청의 소중한 고객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태수
대전지방기상청 홍성기상대장

한편, 2015년 11월부터는 기상청 직제 개정으로 신설된 홍성기상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홍성기상대는 충남 서해안지방을 대표하는 기상 관서로서 작년 10월에 신청사를 준공하여 새롭게 정규관측 업무를 개시한 곳입니다. 나의 마지막 근무지인 홍성기상대가 현재의 멋진 신청사로 건립되기까지의 2년여 동안 모두 합심하여 고생하고 힘써준 기상청 직원과 여러 관계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상기술원 양성소(제21기) 수료생 일동(1978.12.)



예보역량향상과정 교육('15.3.13.~3.20.)



홍성기상대 청사신축 경과보고('17.11.2.)

마지막을 돌아보며

이번 글을 쓰며, 기상청에서 근무한 긴 세월 동안 과연 내가 기상청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뒤돌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서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동료 직원들이 관심과 배려 속에서 위로와 힘을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동료 직원들이 저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과연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동안 일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기상청을 떠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를 남기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목표 설정과 동기 부여입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 받으십시오. 동기 부여야말로 목표를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기가 없으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일을 하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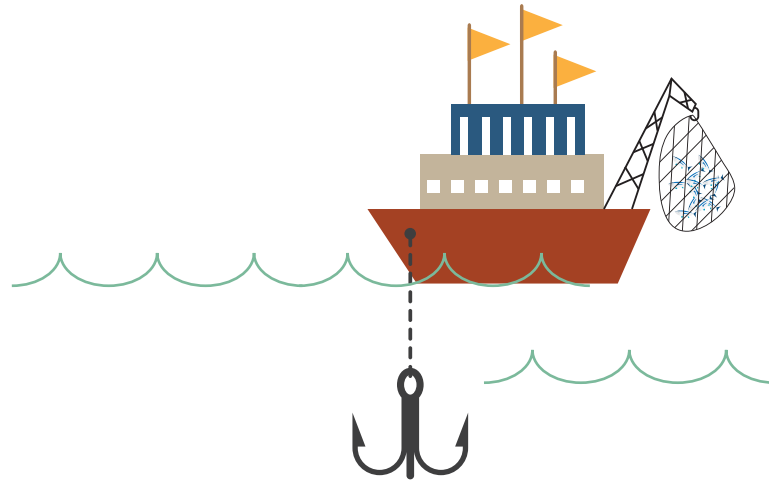
두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업무 분야를 선택하여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첫 입사 후 몇 년간은 자신의 업무 적성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기상업무와 일반행정업무 등의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이후, 자신의 전문 분야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숙달하게 된다면 훗날에는 기상청 조직을 이끌기 위한 관리자이자 최고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취미 생활, 그리고 꾸준한 건강관리는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상청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밥상 위를 덮친 기후변화, 제철 수산물이 사라진다?

구워서 먹고, 회로 떠서 먹고, 찌개나 탕으로도 만들어 먹는 제철 생선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식탁 위 반찬이자 안주입니다. 하지만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하는데요. 그 실정, 자세히 알아볼까요?



점점 따뜻해지는 바다

우리나라의 동해는 북쪽의 한류와 남쪽의 난류가 교차되는 조경수역으로 다양한 수산자원이 철따라 왕래하는 우리나라 1등 어장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기후변화와 남획 등 복합적인 이유로 어업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968~2015년의 한반도 연근해 표층 수온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48년간 1.1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는 1.39℃, 서해는 1.20℃, 남해는 0.91℃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전 세계의 표층 수온은 0.4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은 2~3배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상 수온으로 어획량이 줄어들자, 해양수산부는 어족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부터 자원 회복 및 관리가 필요한 어종을 회복대상종으로 선정하여 수산자원회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살오징어와 주꾸미를 포함한 총 18종을 올해 수산자원 회복대상종으로 선정해 관리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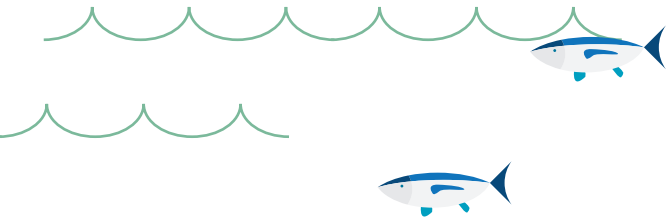
* 대상 품종 : 살오징어, 주꾸미, 도루묵, 꽃게, 낙지, 오분자기, 대구, 참조기, 참홍어, 기름가자미, 말뚝치, 개조개, 갈치, 갯징어, 고등어, 대문어, 옥돔, 명태

금징어가 된 오징어

오징어는 제주도 주변 바다에서 태어나 울릉도 주변에서 성어를 보낸 뒤 다시 태어난 곳으로 내려와 알을 낳는 회유성 어종인데요. 오징어는 수온이 12~15℃일 때 가장 잘 자랍니다. 울릉도 주



유승훈
기상청 10기 블로그 기자



변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 오징어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죠. 그래서 동해안 대표 어종으로 오징어가 꼽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말이 무색합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수온 상승이 어획량 감소에 한몫했기 때문인데요. 울릉도 주변 해역의 표층온도가 높아져 오징어가 머무르기 어려운 조건이 된 것이죠. 또한, 난류가 과거보다 북쪽으로 확장하는 바람에 오징어도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북상해버렸습니다. 실제로 동해안에서 잡히던 오징어는 20만 톤 내외였으나 2016년에는 12만 톤, 2017년에는 8.6만 톤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어획량도 급감, 회복세지만 방심하기엔 일러요

대구는 육질의 기름기가 적고 맛이 담백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성에 잘 맞고, 예로부터 생산량도 많아 즐겨 먹던 어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생대구탕을 먹으려면 가격을 꽤 주어야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어획량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대구는 수온 1~10℃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입니다. 동해 이북 북태평양, 오후츠크해, 배링해 일원에 주로 서식하는 대구는 겨울에 한류 세력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면 이 해류를 타고 동해는 물론 거제도과 통영을 지나 남해 앞바다까지 분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으로 대구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어획량은 남획 때문에 급감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구자원보호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인공수정란을 방류하면서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5년 7820 t, 2016년 4994 t으로 또 다시 줄어들고 있어 자원 관리가 시급한 어종으로 꼽힙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후가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 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물가까지 상승해 우리의 식탁 위를 전혀 다른 음식으로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수산업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겠죠? 앞으로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 모든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한 말씀만 하소서

저자 박완서 | 세계사 | 2004

이 책은 작가 박완서가 1990년도에 가톨릭 잡지 「생활성서」에 연재한 글을 엮은 것이다. 스물여섯의 젊은 아들을 황망히 먼저 하늘로 보낸 엄마 박완서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담겨있다.

참척의 고통

아들을 잃은 후, 작가는 한동안 자신이 처한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을 원망한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만큼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다가 차라리 그 안에서 안정을 느낀다. 작가는 허기를 느껴 음식을 먹은 후 이런 일을 겪고도 살고 싶어 하는 자신의 육체를 경멸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어도 가시 돋친 마음에 위안을 얻지 못한다. 남은 네 명의 딸들은 혼자 남은 엄마가 걱정되어 집으로 모시기도 하고, 기분을 전환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작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작가는 오히려 마음껏 슬퍼하고 통곡하지 못함을 불편해하고, 아들이 없는 이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고통의 감내

그런 삶 속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이해인 수녀가 방문해 본인이 몸담고 있던 부산의 분도 수녀원에 들어가기를 권한다. 작가는 딸들에게서 벗어나 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얼마 후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작가는 한 어린 수녀로부터 남동생 이야기를 듣는다. 고약하게 구는 남동생 때문에 집안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래야 하나?'라며 비관하고 원망스러웠는데, 문득 '세상엔 속 썩이는 젊은이가 얼마든지 있다.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러서는 안 되란 법이 어디 있나?'라고 받아들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동생과의 관계도 호전되었다는 것이다.



김양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어린 수녀의 이야기를 듣던 작가는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라는 그동안의 원한을 내려놓고, 대신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라고 스스로 반문한다. 그때부터 작가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다시 식욕을 느끼고, 다시 신의 존재를 느끼고, 다시 아들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생각의 전환

작가는 어릴 적 기억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찾아낸다. 어린 시절, 무서운 꿈을 꾸다가 흐느끼며 깨어났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돌아눕거라. 그래야 다시 못된 꿈을 안 꾀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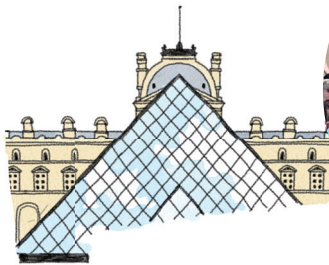
돌아누움, 뒤집어 생각하기, 사고의 전환. 마음이 가진 큰 힘을 다시 느껴본다. 작가의 아픔과 감히 비교할 따위는 못되지만, 나 또한 자식을 키우면서 ‘왜 내 아이는?’, ‘왜 내 아이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생각하며 속상하고 아팠다. 그러나 이 또한 자기 생각에 따라 큰 어려움이 아닐 수도, 또 이겨낼 힘을 주기도 할 것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세상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음을 가장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 아이는 나에게 많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한없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시련과 고통을 주기도 한다. 결혼 전에는 내 아이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근거 없는 믿음을 굳게, 아주 굳게 가지고 있었건만. 그 믿음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습게 깨어졌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반짝반짝 예쁠 것으로 생각했던 아기는 진통이 길어진 엄마에게서 벗어나느라 힘들었던지 인상을 쓰고 태어나는 바람에 내 기대도 무참히 날아갔고. (아가야, 미안! 지금은 네가 제일 예쁘단다.) 아이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 고집이 생기면서부터는 ‘싫어!’, ‘안 할 거야!’를 입에 달고 다녀 엄마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시험하기도 했다.

그동안 아이를 보며 ‘왜 내 맘처럼 못 따라주나?’ 화를 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내 말을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아이에게 소리쳤던 일이 가슴을 쿡쿡 찔러온다. ❧



감사합니다!
Merci! Danke! Grazie!



제목의 단어는 무슨 뜻일까? 각각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다. 내 결혼식이 있었던 4월은 아마도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말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비가 오는 날이었음에도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하객들에게, 나는 비행기 안에서 통신이 끊기기 전까지 “감사합니다”를 계속 외치며 동유럽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로 알찬 신혼여행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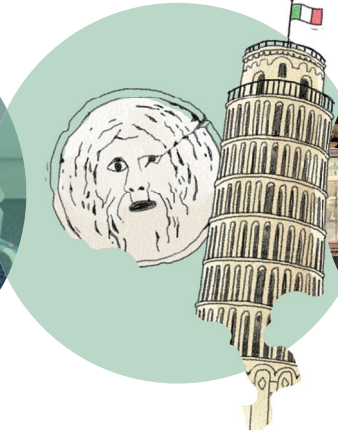
박소림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첫 번째 나라, 프랑스

한국에서 새벽 1시 비행기로 출발하여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고 무려 20시간이 넘어 도착한 프랑스 파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흐리고 비가 자주 와서 쌀쌀한 날씨였다가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정 내내 맑은 하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프랑스에 도착한 우리는 시차 부적응을 느낄 겨를도 없이 가장 먼저 파리의 상징 에펠탑으로 향했다! 철제탑이 뭐가 그리 예뻐까 했지만 넓은 정원 위에 우뚝 솟은 에펠탑은 상상 이상이였다. 해가 지면 에펠탑에 불빛이 켜지는 낭만적인 모습에 또 한 번 반한 우리는 그 뒤로도 매일 저녁 에펠탑을 보러 갔다.

프랑스라고 하면 세계 3대 박물관 중의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도 빠질 수 없다. 박물관을 방문한 관광객 대부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러 온 것 같았다. 당시 우리를 인도한 가이드가 “모나리자와 단둘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 기적”이라고 농담했는데, 모나리자 앞에 가 보니 실제로 그 인파가 어마어마했다. 가이드의 말은 진담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나라, 스위스

스위스는 4개의 공식어를 쓴다. 지역에 따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를 구사하는데, 우리가 간 지역은 인터라켄, 그린델발트, 루체른 등 중북부에 위치하여 독일어 사용 빈도가 높은 곳이다. 또, 스위스는 나무와 풀이 곳곳에 질푸르고 높은 산과 에메랄드빛 호수가 경관을 이루는 대자연의 나라다. 개인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내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한 나라였다. 그리고 그 기대는 충족을 훌쩍 뛰어넘어 이곳에 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했지만, 스위스의 비싼 물가가 이내 나의 생각을 고쳐주었다.

우리는 스위스의 만년설이 덮인 융프라우요흐 전망대에 오르기 위해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산악열차에 탑승했다. 잠시 후,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해발 3,454m의 철도역에 도착했다. 이곳은 수시로 변하는 날씨 덕분에 허탕을 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날만큼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우리를 반겨주어 웅장한 자연을 느낄 수 있었다. 사족으로, 여기서 먹는 컵라면은 꿀맛이다! 누군가 여길 방문한다면 꼭 먹어보길 추천한다.



세 번째 나라,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며, 남쪽과 북쪽으로 뾰는 산맥이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벤치마킹한 곳이 바로 이탈리아의 고속도로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로마에서 폼페이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낫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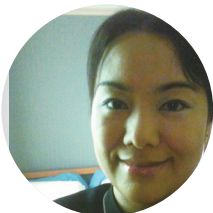
폼페이. 영화 제목으로도 익숙한 이곳은 남부 나폴리 해안에 위치한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도시이다. 현재는 발굴 작업을 통해 공중목욕탕, 체육관, 원형경기장 등이 확인되어 기원전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다. 또한, 두꺼운 화산재로 인해 폭발 당시 그대로 굳어버린 사람, 개 등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사라진 모습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누군가 말했다.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가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떠나는 거라고. 유럽여행을 갈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욕심을 내어 3개국을 다녀왔다. 하루에 2만보 가까이 걸느라 체력적으로 무척 힘들었지만, 여행 내내 너무나도 맑은 날씨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날들이었다.☀



비와 '어린' 당신의 이야기

그림책은 그림과 이야기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장르로, 종합예술인 영화와 비슷한 면모를 지녔다. 예전에는 그림책을 어린이의 전유물로 여기기도 했으나, 현대의 그림책은 연령을 한정하지 않는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했다.



한윤아
문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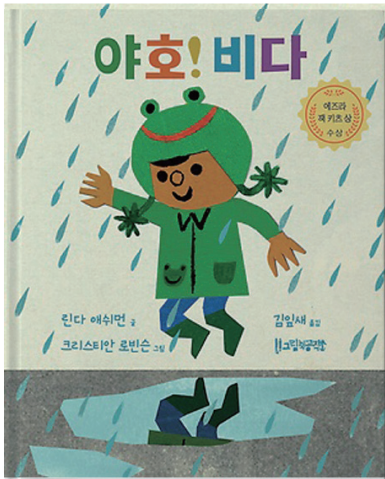


저자 | 전미화

빗방울이 후두둑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모락 모락 피어오른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해 무겁게 가라앉고, 비에 젖은 건물은 색이 점점 짙어져 도시의 채도를 낮춘다. 멜랑콜리한 분위기. 하지만 빗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면 난감하다. 사방으로 몰아치는 비, 말 안 듣는 우산, 헤드라이트를 켜 공격적인 차와 사람들과의 부딪침. 그야말로 도시의 전투다.

전미화의 그림책 <빗방울이 후두둑>은 강렬한 색감으로 이 전투를 표현한다. 장마철,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쏟아지는 날, 주인공인 젊은 여자는 초록색 치마와 빨간색 뽕족구두를 신고 출근길을 나선다. 이런 날, 가로수의 팔을 꺾어버리는 세찬 바람에 우산대가 훌리당 뒤집혀버리는 건 순식간. 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여자는 우르르 달리는 사람들 틈에 휩쓸려 가다가 파닥 넘어지고 만다! 여자의 얼굴이 뜨거워진다. 그러나 그녀는 넘어져버림으로써 앞서 달려간 사람들과 조금 떨어지게 되었다. 이 거리감은 역설적으로, 사람들로 둘러싸인 무리를 찬찬히 바라볼 여유를 주었다. 예라 모르겠다! 천천히 걸어가자. 그녀는 더 이상 물을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여름 소나기, 시원하네!”



글 | 린다 애쉬먼
그림 | 크리스티안 로빈슨

개구리처럼 폴짝!

크리스티안 로빈슨의 그림책 <야호! 비다>에는 청개구리 우비를 꺼내 입으며 신이 난 아이가 등장한다. 크리스티안 로빈슨의 그림책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곤 하는데, 이 꼬마도 마찬가지다.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본 아이는 개구리처럼 폴짝! 뛰고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한편, 책은 비를 반기는 아이와 대조적인 어른의 모습을 양쪽 면에 나란히 전개시킨다. 이를테면, 모자를 귀찮아하는 할아버지와 개구리 모자를 좋아하는 아이의 대비 장면이 그렇다. 후반으로 가면 개구리 아이는 마침내 할아버지와 마주친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찡그린 얼굴을 따라하며 거울처럼 어른의 모습을 비춘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화난 눈썹이 부드러워진다. 아이가 쓴 개구리 모자는 곳은 날씨 때문에 짜증 난 노인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해준다.



글 | 리처드 잭슨
그림 | 이수지

유년시절의 신비로움

그림책에는 비가 오는 날도 맑은 날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멋진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책이 많다. 이수지의 그림책 <이렇게 멋진 날>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의 표지는 '이렇게 멋진 날'이라는 제목 타이포그래피 중 '멋진'이라는 단어가 비와 닮은 물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첫 페이지를 펼치면, 창밖으로 까만 하늘과 비가 보이지만, 비를 맞이한 아이들의 자세는 이렇다. 라디오 음악을 딸깍, 켜면서 아이들만의 멋진 날이 시작됐음을 알린다. 동동동동 퍼지는 듯한 음악에 맞춰 춤추고, 발장구치고, 뱅글 뱅글 돌다가 자연스럽게 비가 오는 건물 밖으로 향한다. 그림책에 등장하는 모든 장면은 즐거움에 몰두해 세계를 자기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아이다운 본성을 보여준다. 이수지 작가의 작품에는 원초적인 자유를 체득한 역동적인 몸의 흐름이 아름다운 푸른 색조와 더불어 표현되곤 한다.

아이들은 부드럽고 유연한 비를 닮았다. 스스로 흠뻑 젖은 비가 되었다가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 주저함이 없다. 오로지 감각에 집중하며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던 능력. 비가 오는 날엔 푸른 공기와 냄새에 오롯이 자신을 맡기고, 다시 떠오를 햇빛의 반짝임을 믿었던 아이. 우리에게도 그런 신비로운 어린 시절이 있었다. 6월의 여름. 오래전의 그 아이를 그림책으로 다시 만나보고 싶어지는 계절이다.

소나기, 비의 계절을 지나는

맨발의 여자가 한 손에 샌들을 든 채 도로를 건너는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고 갤러리에서 나왔다. 딱히 인상적인 사진이 있던 것도, 유명한 작가가 참여한 전시도 아니었다. 입장할 때 받았던 삼단 리플릿은 이미 출구 쪽에 여러 장 쌓여있었다. 전시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두고 간 것이겠지만 어쩐지 손에 들린 리플릿을 그 위에 한 장 더하는 일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리플릿을 가방 사이로 밀어넣고 엉망으로 놓여있는 리플릿을 한데 모아 모서리를 맞춰 정리해 다시 내려놓았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불쑥 끼어들어 리플릿 뭉치를 집어 들었다.



이옥수
독립잡지 트램폴린 편집장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가죠?”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말간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다. 쉽게 잊혀질 것 같은 얼굴이다. 별다른 특색도 표정도 없는.

“버린 건 아닐 거예요.”

나의 짧은 대답에 그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갤러리 관계자인가, 하는 생각이 스치는 것과 동시에 그녀가 말했다.

“점심 같이 할래요?”

“네?”

무언가 단단히 착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플릿을 정리하는 모습에 나를 자신과 같은 전시관계자로 오해한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딱히 그 오해를 당장 풀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간 얼굴로 당황하는 모습이 궁금해서 그녀에게 물었다.

“뭐 먹을까요?”

그녀가 길 건너의 칼국수 가게를 가리켰다. 색이 제법 바랜 녹색 간판 위에 흰 페인트로 쓰인 칼국수라는 세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 근처에서 제법 오래된 맛집인가 싶었지만 그녀와 내가 주문한 손칼국수는 간이 맞지 않았고, 김치마저 메뉴판에는 중국산이라고 쓰여 있었다. 너털웃음이 났다.

“엄청 맛집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는 그녀를 유심히 본 후에야, 나중에 한 번쯤 떠올렸을 때 선명하지는 않더라도 기억해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쌍꺼풀이 없는 눈과 도드라지지 않은 광대와 턱, 조금 지워진 산호색 계열의 볼터치가 눈에 들어왔다.



“조금만 더 먹고 일어나요. 너무 많이 남기면 미안하잖아요.”

그녀가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다. 그 모습이 어쩐지 귀엽게 느껴져서 맛있는 칼국수 한 그릇을 모두 먹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처마 아래 섰다. 그녀는 처음 봤을 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카운터에서 받아 온 박하사탕 하나를 건네줬다. 김치에 잔뜩 들어있던 생강 맛이 겨우 가시는 기분이었다.

“소나기네요.”

대꾸 없이 그녀는 가만히 내리는 비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길 건너의 낮은 갤러리로 향해있었다. 붉은 벽돌의 갤러리는 비에 젖어 더 진한 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비로 소 벽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여러 명의 전시작가 중 제법 크게 인쇄된 그녀의 사진은 지금보다 더 표정이 없는 얼굴로 비 오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름에 내리는 소나기를 제일 좋아해요. 불안정해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녀가 아까처럼 소곤거리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리플릿을 한 장 건네며 말했다.

“이거라도 쓰실래요?”

리플릿으로 머리를 가리고 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어쩐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빗방울 몇 개가 리플릿에 작은 물방울무늬를 냈다. 그녀에게 무언가 더 말을 해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억날 리 없었다.

“밥 같이 먹어줘서 고마워요. 그냥 궁금했어요. 내 사진을 보러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갈게요.”

그녀가 빗속으로 총총총 뛰어들었다. 마지막에 본 사진 속의 여자와 그녀가 닮았다는 생각이 살짝 스쳤다. 그녀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그쳤다. 소나기였다. 갤러리의 현수막을 다시 올려다보았지만 아주 낮은 얼굴을 한 여자가 금세 갠 하늘 응시하고 있을 뿐 내가 보았던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다.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제8차 한-몽골 기상협력회의 개최 (5월 1일)
기상청은 한-몽 양국 간 기상기술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8차 한-몽골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했다.



• 화산특화연구센터 개소 (5월 2일)
백두산 화산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화산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앞으로 주관 연구기관인 부산대학교와 함께 백두산 화산 감시체계 및 분화 대응 연구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 제2차 현업기상레이더 전문가팀 국제회의 개최 (5월14일~18일)
전 세계 기상레이더 표준화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 산하 '제2차 현업 기상레이더 전문가팀(IPET-OWR*) 국제회의'를 서울 글래드 호텔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 여름철 방재기상 업무시작 (5월 15일)
다가오는 여름철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재업무를 점검하고 다짐하는 '2018 여름철 방재기상 업무시작 선언식'을 국가기상센터에서 개최했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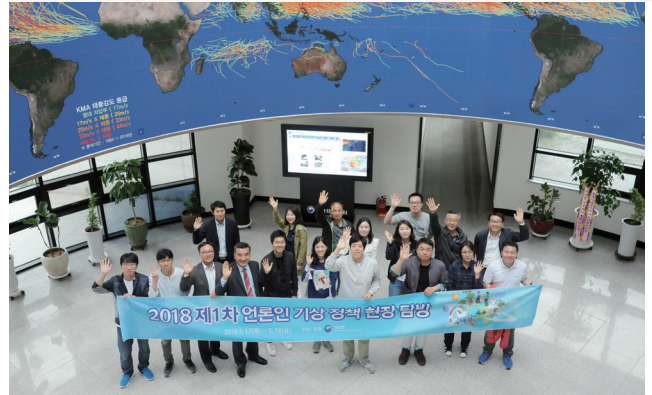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Photo News



지진대피훈련 시행 (5월 15일)

기상청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맞이하여 재난 초동대처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진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언론인 기상정책 현장 탐방 개최 (5월 17일~18일)

국가태풍센터 업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태풍 상세정보 서비스 개선 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언론인 기상정책 현장탐방을 국가태풍센터에서 실시했다.



여름철 기상전망 및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정책 브리핑 (5월 23일)

기상청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올해의 봄철 기상특성과 여름철 기상전망, 태풍전망 브리핑 및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호우특보 발표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지진 긴급재난문자 관련 정책 브리핑 (5월 31일)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 기상청 직접 발송 정책과 '국내에 진도 IV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국외지진'의 조기경보 시범 운영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독자마당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6월 25일까지 전자우편 (kmanews@korea.kr)으로 구독 소감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 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제시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참신한 생각으로 뽐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월호의 단어는 <여름>입니다.

지난달 우수한 한 문장! <가족>

김우익, 화성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을 길동무들

박동호, 부산
힘들 땀 어깨를 대신하고, 기쁠 땀 웃음을 두 배로 나눌 수 있는 울타리

정윤식, 서울
지금보다 더 잘해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아쉬움

장송기, 전주
어둠을 밝혀줄 빛나는 촛불

홍소진, 서울
비를 막아주는 우산 같은 소중한 존재

QUIZ

지난달 퀴즈 정답

지난달 퀴즈 정답자

1. 기록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제하고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을 일컫는 말은?

- ① 블록데이터 ② 블록체인
- ③ 블록테크놀로지 ④ 블록컴퓨터

- 1. ② 비행운
- 2. ① 울릉도

박지웅(서울) 이혜진(서울)
백승록(서울) 이준임(경기)
최천만(창원)

2.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먹구름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다 그치는 비는?

- ① 가랑비 ② 이슬비 ③ 소나기 ④ 안개비

인사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임명	'18. 5. 9.	관측기반국	국가기상 슈퍼컴퓨터센터	기술서기관(센터장)	박성찬
휴직(연장)	'18. 5.13. ~ 11.12.	기상청		기술서기관	홍성대
임기 종료	'18. 5. 31.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	기술서기관(과장)	이시용
파견(연장)	'18. 6. 1. ~12.31.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기상사무관	심안섭
				기상사무관	양석중

이준임 경기

정책 클로즈업에 실린 '실시간 총 자외선 지수 서비스 개선'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요즘 외출이 잦아져 자외선 노출이 걱정되던 터라 특히 반갑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기후정보 포털 사이트가 전면 개선되어 실시간별 총 자외선 지수 지점이 확대되고, 자외선 지수별 대응요령과 각종 자외선 관련 정보를 새롭고 다양하게 제공해주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기상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박지웅 서울

'건강한 다이어트는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기사 재밌게 읽었습니다. 봄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좋은 때인 만큼, 다이어트 또한 주요 목표로 등장하곤 하죠. 처음에는 제목을 보고 좀 의아했지만, 글을 읽다 보니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기상청의 가족사랑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매년 진행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인바디 기계, 테니스장 등의 체력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기상 업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박동호 부산

대구기상지청 조정호 씨의 울릉도 기사를 읽는 내내, 마음은 이미 울릉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릉도를 두 번 정도 가보긴 했지만, 정말 하늘이 도와야 갈 수 있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날씨를 예측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울릉도는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도로가 많아서 육지에서 있었던 힘들고 지친 일상을 모두 잊게끔 만들어주는 '힐링' 섬인 것 같아요. 기상청의 울릉도 파고부이 추가 설치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를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 심영보, <소나기>, 2017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 글 : 조희애

나의 도시

이름은 다정한 것이다
당신이 나를 부르면
내 귀는 희미해지고

도시는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침몰한다

진공

우리는 이것을
음악이라 부른다

고백할 게 있어요

당신의
무릎 뼈가
우둑우둑 자란다

문득,
사소한 것들이 떠오른다

아마도 그림자는
이미 잃어버렸을 것이다



2018년 6월부터 달라지는 기상서비스



풍랑·강풍특보 해제 연장 시

‘해제예고 연장 특보’로 기상서비스 확대 (5월 30일부터)

*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의 '특보·예보' > 특보·정보 > 통보문'에서 확인 가능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하기 위한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6월 1일부터)

호우주의보

기존 예상

70mm/6hr 이상
110mm/12hr 이상



개선 예상

60mm/3hr 이상
110mm/12hr 이상

호우경보

기존 예상

110mm/6hr 이상
180mm/12hr 이상



개선 예상

90mm/3hr 이상
180mm/12hr 이상



폭염특보 발표 이전에도 고온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폭염영향정보’ 시범 제공 (6월 1일부터)

* 폭염영향정보 : 과거 폭염 피해사례와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보건, 어업, 농업, 산업, 가족, 에너지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차별화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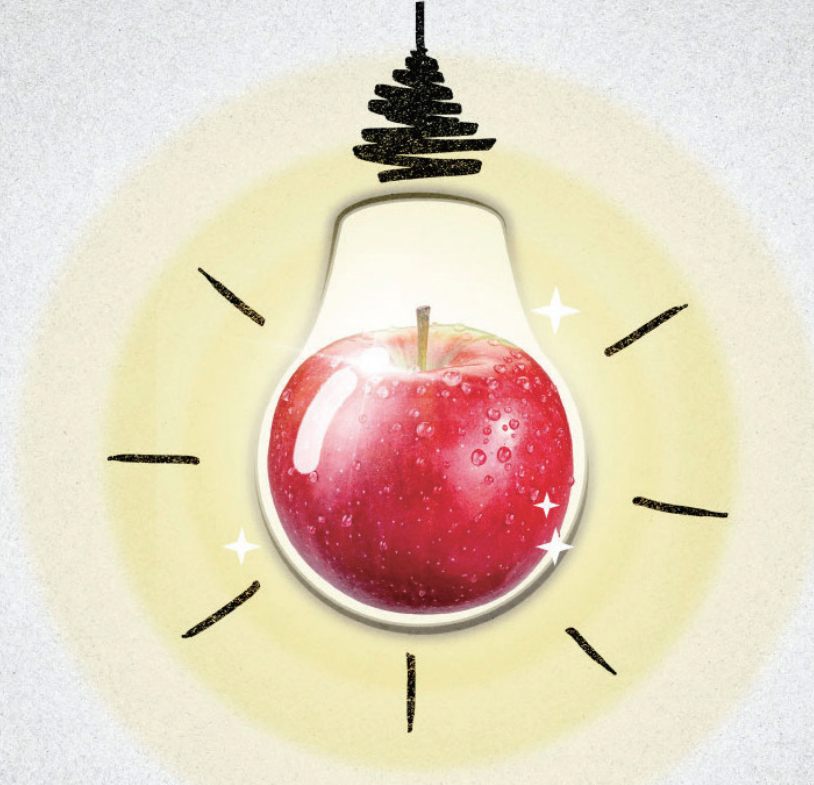


**‘국민행동요령’이 포함된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기상청 직접 발송** (6월 4일부터)

또한, 대규모 국외 지진 시 국내영향(진도 IV 이상)에 대한 조기경보 시범 운영

‘사과’ 심은데 ‘사과’ 나고,
 ‘아이디어’ 심은데

‘대박’
 난다



2018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접수기간 : 2018.06.11 (월요일) ~ 07.18 (수요일) 18시

참가대상

농식품분야의 아이디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아이템
 · 식품 및 농산물, ICT, 서비스, 농기자재, 바이오, 6차산업 분야

참가방법

· 온라인 - 콘테스트 공식홈페이지 (www.a-creative.kr)
 · 방문 - 전국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희망지역 방문 제출
 · 우편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및 창업한 지 5년 이내 (2013.1.1 이후) 창업자

시상내역 (세금포함)

대 상 (대통령상)	1점	1억원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1점	3,000만원
우수상 (장관상)	3점	각 1,000만원
입 선 (주관기관장상)	5점	각 200만원